

도내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잇따라'



군산시

군산시는 지난 27일 서수면 축동리 일원에서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27일,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유관기관 및 임업인 단체, 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팝나무 500주를 식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지속가능한 진안홍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조성 중인 '병풍홍삼 집적화단지' 부지 내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성 중인 단지 내 약 0.5ha 부지에 정성껏 나무를 심었다. 식재수종은 예로부터 꽃이 만개하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이팝나무로 선택해 군락지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수종 선정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평지리 이팝나무 군(천연기념물 제214호)'의 역사적 상징성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군은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자연 친화적 경관 조성도 함께 추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

순창군은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7일 귀래정 유아숲 일원과 군청 앞 경천변 일대에서 기념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시 찾고 싶은 순창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무원과 산림조합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나무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군청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식재 구간으로 이동해 수국 1,200주와 잔디 230㎡를 식재하고 주변 환경 정리 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오후에는 양지천 일원으로 이동해 꽃잔디와 수선화 식재 구간 정비 등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도 이어가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 신풍동, 새민금 마라톤 대비 환경정화

군산시 신풍동(동장 황보영)은 2026 새민금 마라톤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8일 통장협의회(회장 조옥경)와 함께 관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마라톤 코스가 통과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통상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장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통장협의회회원들은 마라톤 주요 동선과 인도, 주택가 일대를 중심으로 도로변 잡초 제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세심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군산=김만호 기자

농촌 인력난 완벽 해결 총력

고창군,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식

고창군이 3번째 권역거점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식을 열면서 '농촌인력난 완벽해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흥덕면 일원에서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식'을 열었다.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남부권 2026년 2월 개관한 중부권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권역 거점시설이다. 고창군은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급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

북부권 기숙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 농업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건립되는 사업이다. 특히 북부권(흥덕권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창군은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북부권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이며, 완공 시 북부권 일대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통해 농가에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왔다. 특히 기숙사 운영을 통



해 인건비 안정과 농작업 효율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전국 최대 수준의 농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숙사 확충과 연계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고창군은 오는 2030년까지 권역별로 총 5개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구축해 농촌 인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벽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고창군은 이동 출입국 서비스, 이동 미야점사실 운영, 이동 은행 서비스, 고창사랑 상품권 소비정책 등 '고창형 농촌인력 4대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입국부터 정착,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비... 전주시 건강의료안전망 설명회

전주시와 전주시의사회(회장 박용현)는 지난 28일 전주병원 별관 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건강의료안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전라북도 내 개원의 등 의사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현 전주시의사회 부총무(의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용현 회장의 개회사와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축사를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 첫 번째 강에서는 이해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이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을 소개했다.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의료 분야 핵심 사업으로,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의료지원 체계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군 분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권희성 기자



이어진 두 번째 강에서는 이상범 서울 신내의원 원장이 '노인포괄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노인포괄평가는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와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도구로, 통합돌봄사업의 기반이 되는 평가 체계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원용 고산성모의원 원장이 세 번째 강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정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팀장이 방문진료수가 구조와 청구 절차를 설명하며 의료가 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준을 안내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에 장학금 1억원 기탁

김제시 장학재단은 지난 27일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제시 장학재단 정성주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최중구 부행장, 송민규 김제지점장, 정은영 차장 등이 참석한 지역 인재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김제시 장학재단과 전북은행 김제시지부가 체결한 금고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장학재단 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되며, 이번 기탁금을 포함한 협약 기간 동안 매년 1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장학재단에 후원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금동, '뽕송이불 세탁데이' 사업 추진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 세탁서비스 '뽕송이불 세탁데이'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사업에서는 이불 세탁·건조·배달 및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점검,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며, 지난 28일 15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사업은 금동이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운영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불 세탁 및 건조를 지원하고 금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와 생활지원사, 동 직원 등과 함께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와 배달을 맡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봄나물 도시락 지원사업 진행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화사업인 '사계절 이웃사랑 행복밥상'의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28일 봄나물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취나물·유채김치·미나리나물 등 계절 봄나물을 담은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복 밥상은 단순한 도시락 지원을 넘어, 계절마다 어울리는 음식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봄나물 도시락 지원은 그 첫걸음이다.

진중은 동장은 "1일 1가구 소분행식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장학재단, 제83차 이사회 개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지난 28일, 제8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단 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춘향인재 장학생 선발 승인(안) △남원의 별 및 '오피앙제' 특별 장학생 선발 총 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이 확정됨에 따라 총 142명에게 2억6,650만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춘향인재장학생 139명, 2억5,100만원 △남원의 별 특별장학생 2명, 550만원 △'오피앙제' 특별장학생 1명, 1,000만원이다.

재단 관계자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 소비 활성화... 전북농협, 시식행사 개최

전북농협이 한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식행사를 열고 우리 돼지고기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지난 27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전주 김제원주축협에서 '한돈 소비촉진 시식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 부부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주김제원주축협 조합장, 방대섭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회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해 한돈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권희성 기자



북전주농협, 2025 결산 운영 전반 조합원에 공개

북전주농협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의 신뢰 강화를 위해 운영 전반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북전주농협은 지난 25일과 28일 이틀간 2025년 결산 운영 공개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성과와 재무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무 상태, 2026년 사업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주요 분야의 운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으며, 농기계은행사업 등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조합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성근 기자



김제농협,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2026년 3월 25일과 28일, 2일간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2026년 사업설명회(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결산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환원사업, 영농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제농협은 조합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현장에서 이를 중심으로 결산 내용과 주요 사업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제농협은 지난해 연체를 0.63%를 유지하며 건전경영을 이어가 '블린뱅크' 금메달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조합원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결산 결과를 반영해 △교육지원사업비 22억9,400만원 집행 △출자배당 10억5,000만원(배당률 5.14%) △사업이용실적 배당 7억5,000만원 △사업준비금 7억5,000만원 적립 등 조합원 실익 중심의 환원 성과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저온참고 확충 등 농산물 유통 기반 강화와 두류(콩) 산업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사업도 공유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도서관주간 독서 문화 행사

부안군립도서관은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도서관주간(4월 12~18일)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형 보드게임 '환경을 지키는 한 판 에코몬 보드게임'과 대출 정지를 해제 주는 '연체 풀고 바로 대출', 전자책 읽고 기프트콘 받자! 등이 운영되며, 도서관 내부에 '아트프린팅 전시'와 '환경과 함께하는 북큐레이션'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도서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